



이렇게 본다 《노동자 연대》 신문 논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반전 운동의 전망

8~9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미국 극우는 끝장나지 않았고
기층에서 활약 중이다

3면

중국 학생 시위를
계기로 보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

10~12면

고리2호기 폐쇄!
수명 연장 반대!

16면

노동자 투쟁

화물연대 파업 4~7면

우체국 택배 투쟁 13면 기간제 교사 투쟁 12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2면



화물연대 파업, 올라다!

관련 기사 4~7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직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들이 서로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동결을 선택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은 사실상 실질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미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겼고,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노동자 서민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퍼센트로, 물가상승률을 4.2퍼센트로 조정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적어도 7퍼센트는 올라야 겨우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 상승은 이 예측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와 유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5~7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5퍼센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OECD와 한국은행 모두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상승 전망치는 높였다.

사용자 측은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작동 방식의 실패(물류 공급망 혼선,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에서 비롯한 것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 노동자들의 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

저임금층은 지금의 물가 인상 전에도 먹고살기가 팍팍했는데, 지금은 더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1~3월 저소득층(소득 하위 20퍼센트) 가구는 월 가처분소득의 42퍼센트가량을 식비에 쓸 정도였다.(기재부, 통계청)

애초 최저임금 자체가 낮아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최저선 보장’이라는 취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비혼단신근로자 한 달 평균 실태생계비(실제로 사용한 생활비)는 220만 5432원이지만,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 191만 4440원에 불과하다.



고물가·고유가로 더 팍팍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 저임금 노동자를 더 저임금으로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추가적인 임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동결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비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이를 공식 국정과제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말이다.

수년 동안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르짖어 온 사용자 단체들은 우파 정부의 등장과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이를 이번에 밀어붙여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특히 차등적용을 하자는 업종들이 대체로 미조직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력 부대들과는 관계가 없어서 제대로 방어받지 못할 부문들이라는 점도 노렸을 것이다.

6월 1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총은 숙박업·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퍼센트나 달한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들에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애초에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숙박·음식업·도소매 등에 밀집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이 지적했듯이, “위의 업종

및 규모에 대한 낮은 최저임금 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 자체를 낮추는 것과 같다 ... 이것이 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개편 방안, 〈월간 노동리뷰〉 2019년 11월호)

즉, 사용자 일부는 최저임금 지급의 무조차 지키지 않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내야 한다.

만약 업종별 차등적용이 관철된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는 업종들의 존재 자체가 전체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편, 경총 등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가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 중소기업인 단체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지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예 지난 8일 국회 주변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올들의 연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냉정하게 보자면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 분명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최저임금



물가 폭등으로 가중된 생계난

인상은 수익성에 압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확고하게 방어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앞세워 명백한 계급적 이해관계 차이를 얼버무리면 결국 노동자들도 일정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압력에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 침체와 전쟁이 야기한 고통에 책임져야 할 자들은 체제의 수혜자들인 지배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단호히 지키는 투쟁을 벌여서 자본가와 정부가 경제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서민층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양효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극우는 끝장나지 않았고 기층에서 활약 중이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에 대한 의회 조사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구성한 것이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협조를 거부하고 상원의 조사 참여를 저지했다. 조사에 참가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에 불과한데, 조지 W 부시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가 대표적이다.

보통 의회 청문회는 청문회 개최자들의 출셋길을 닦기 위해 열리지만, 이번 청문회는 십중팔구 체니의 경력을 끝장낼 듯하다. 이번 청문회의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를 끝장내고, 더 좋기로는 트럼프를 기소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체니는 트럼프가 “폭도를 불러 모으고 공격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의회 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前) 미국 대사 노먼 아이젠은 지적한다. “그들은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 이, 미국의 앞길이 민주주의일지 트럼

프 식일지를 정하는 국민투표가 될 것임을 보여 줘야 했다.”

청문회 첫날(6월 7일) 공개된 증거는 충격적이다. 가장 강렬했던 것은 1월 6일 촬영된 감시카메라 영상, 경찰 바디캠 영상 등 온갖 영상 기록을 종합한 영상이었다. 그 영상에는 두 극우 단체 ‘오스 키퍼스’와 ‘프라우드 보이즈’가 준 군사적 파견대를 모아서 조직적으로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단체 지도자들이 사전에 주차장에서 만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영상의 본문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탈취 중단” 집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파시스트들이 인근 현장에서 그 연설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파시스트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거듭 제기한 요구를 연호했다. 당시에 펜스는 국회의사당에서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특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펜스가 회의를 정회하고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시켜 주기를 바랐다.

증거 영상에는 꽤 무장을 한 극우 시위대가, 수적 열세인 데다 지리멸렬하게 국회의사당을 경호하던 경찰관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의사당 안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은 나오지 않는다. 애초 인상처럼, 난입에 성공한 폭도들은 그 다음에 무얼 해야 할지 몰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배회하기만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과 트럼프

는 펜스가 즉시 꼬리를 내리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파시스트들의 의사당 난입을 허용한 미국의 국가안보 기구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의 중이던 의원들을 피신시키고 경호했다. 그리고 얼마쯤 관료적인 실랑이를 벌인 후, 침입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몰아냈다. 같은 날 몇 시간 후 의회 절차가 재개돼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했다.

안보 기구의 기층에서 트럼프·파시스트들과의 공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간에, 최상층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는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서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에 비견할 만한 순간이다. 트럼프는 히틀러의 복음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로 의사당 난입 사건의 진상이 훨씬 명확히 밝혀진다 해도, 그 때문에 트럼프가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공식 결정한 것은 이 당에 대한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다.

‘프라우드 보이즈’와 ‘오스 키퍼스’의 지도자들은 ‘선동·음모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이 조직들은 공화당의 기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체니는 자기 소속 주인 와이오밍 주에서 재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와이오밍 주 공화당은 스스로를 공화당원으로 여기기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로 여기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서서히 장악돼 왔다. 현재 와이오밍주 공화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의 지도자는 프랭크 이스톤인데, 이스톤은 ‘오스 키퍼스’ 회원이고 1월 6일 난입 당시 무전기를 들고 국회의사당 서쪽 정면에서 있었다.”

옛 공화당 지역 간부였던 조셉 맥킨리에 따르면, “이는 몇 년에 걸쳐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시당(市黨)을 장악하고, 그 후에는 주당(州黨), 그 후에는 입법부 의석, 그 후에는 나머지 선출직을 모두 장악한다는 장기적 목표가 있다.”

미국 극우에게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은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다. 끝이 아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9호 /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

1933년 2월 27일 독일 국회의사당이 불탄 사건. 당시 총리였던 히틀러와 나치는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의 소행으로 몰며 나치의 독재 권력을 수립하는 데에 이용했다.

화물연대 파업

생활비 위기에 맞서는 국제 투쟁의 일부다

박설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일주일 넘게 파업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유가 폭등의 고통을 온전히 떠안은 노동자들은 깊은 분노를 터뜨리며 강단 있게 싸우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생계비가 쪼들리고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한 데 대한 불만과 저항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에서는 식량 가격이 57퍼센트 이상 올라 항쟁이 벌어지고 있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단에 서도 거리에서 폭발력 있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중동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국제적 항의의 일부다.

국내에서도 물가 인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치솟는 유가에,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윤석열 정부는 전쟁 지원 말고 노동자 지원하라! 6월 7일 의왕기지 앞 파업 집회

1997년 IMF 경제 공황 이후 처음으로 6퍼센트대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 파업이 성과를 내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레미콘 건설 노동자들이 운송

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이 한 사례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6월 18일 경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단지 화물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화물 노동자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모아야 한다.

화물 노동자들의 힘이 드러나다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며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자, “노사 자율 해결”을 말하던 윤석열 정부는 직접 교섭에 나서야만 했다. 지난 주말 열린 릴레이 협상이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뒤집히고, 그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일부 양보해서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집권 초부터 밀렸다가는 앞으로 저항을 단속하고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화주(기업주)들의 강경 대응 압력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이 성과를 내려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확대가 관건이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은 물론 많은 비조합원들도 일손을 났다.

특히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과 석유 화학단지, 물류센터, 시멘트·자동차·반도체 등 공장 앞에서 대체수송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병력과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고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지만(6월 13일 밤 현재 76명 연행, 2명 구속),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가 화물연대에 연대하기 위해 화물열차의 증편 운행, 대체수송

을 거부하고 나선 것도 고무적이다. 2013년 철도 파업 때는 거꾸로 화물연대가 그런 연대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런 투쟁의 결과,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서 건설업계는 ‘췌다운 위기’에 처했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일부 생산이 중단됐고,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주요 항만과 물류 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도 상당 부분 막혔다.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를 움직이는 화물 노동자들의 힘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노동자가 뭉치면 강하구나, 찌릿했습니다”, “우리를 앞잡아 보고 깔보던 자들에게 본패를 보여 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며 고유가 사태 일조하는 정부

정부와 재계,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 1주일 만에 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빚어졌다며 거품을 물고 있다. “국가 경제를 거덜 낼 판”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화물 노동자들이 이 나라 경제의 버팀목 구

실을 해 왔음을 보여 줄 뿐이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게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난이 심각해진 것, 전쟁

이전부터 이미 반도체와 원자재 등 공급난이 심해진 것 등이 위기를 낳았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대체수송 저지는 정당하고 효과적인 투쟁

정부와 사용자들은 특히 노동자들의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보수 언론들도 “무법천지”, “폭력”, “극단의 이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매도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파업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승리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대체수송(인력)은 파업을 파괴하려는 비열한 짓이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고 파업 대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은 파업할 때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피켓라인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 가령, 1970년대 초 영국 보수당 정부를 끌어내린 광부 파업에서 이 전술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한국의 화물 노동자들은 2003년에도, 2008년에도 대체수송을 막는 봉쇄 투쟁을 벌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안전운임제 확대하고 운송료 인상하라

유가는 지금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비로 기름값을 대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로 폐지될 위기에 처한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중요한 보루”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미적용 노동자들의 운임을 정하는 데서도 기준점이 된다.

화물연대는 이에 더해, 안전운임제를 전차종·품목으로 확대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료를 인상하라는 파업 요구를 내걸었다.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은 말했다. “우리가 윤석열 (우파) 정부에 맞서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지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동지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됐던 동지들이 파업 대열에 더 많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더 나은 요구를 따내고 단결력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차종으로 확대하고, 유가 보조금이나 운송료 인상하라는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

“십수 년 만의 열기.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6월 7일, 본지는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권영한 한국타이어지회장을 만났다.

그는 파업 돌입 이후 조합원들과 함께 자기 공장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 한온시스템, 최근 계약해지와 구속 등 탄압에 직면한 하이트진로 등을 두루 돌며 투쟁하고 있다.

권영한 지회장(아래 사진)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 분위기를 전한다.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정적으로 요소수 가격과 유가가 급등해서, 전적으로 모두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에 유가가 리터당 1313원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918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 유가가 급등해서 지금은 2000원이 넘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월 평균 25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운송을 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을 포기하는 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운송료는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유가 보조금 같은 것을 정부가 마련해야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운송료가 인상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안전운임제 자체를 2022년 말 일몰제로 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체 41만 화물 노동자 중에서 안전운임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2만 6000대에 불과합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 전 차종으로 안전운임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멈춰 선 자동차 운송(카캐리어) 트럭들, 6월 7일 광주지역

또, 고유가 현실에 맞게 운송료가 인상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 질서” 운운하면서 탄압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노동 배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계속 강경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SPC 화물 투쟁을 언급하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해 왔죠.

보수 언론들도 마치 화물연대가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범죄집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 전에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만났는데, (주로 대기업들인) 화주 쪽 요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 요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안전운임제 때문에 화주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봤으니 운

임을 인하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화주들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여러

실험과 공청회를 통해서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난 뒤에 사고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운송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무리하게 과적·과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업무방해(죄위협과) 탄압이 있더라도,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켜내야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통전가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싸울 것입니다.

파업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파업 전에 5월 28일, 서울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1만 2000명이 모였습니다. 2008년 유가가 1800원대로 올랐을 때처럼, 십수 년 만에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참겠다, 이런 분위기가 표출된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에도, 주차장에 가 보면 거의 대부분 차를 세워 두고 있습니다. 파업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해도, 비조합원들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투쟁을 많이 해 봤지만, 다들 느끼는 건 십수 년 만에 노동자의 합성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마

치면 목이 다 쉴 정도입니다. 그만큼 정당한 운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절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일반 카고차, 웬바디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번 파업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대가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대체 운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성과가 나오면, 다음에 이어지는 투쟁들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지하고 연대해 주세요.

인터뷰·정리 안우춘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등의 생산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운행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음주부터는 석유화학단지에도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 엄정 대처” 방침 속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파업 투쟁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재했다.



운송료를 인상하라! 6월 8일 현대차 4공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는 노동자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비조합원들도 참여. 일요일처럼 차가 없어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입 화물의 보관과 운송을 담당하는 ‘내륙 항만’이라 불리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가 멈췄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운전하는 군차량이 대체차량으로 출입하고 있고, 일부 화물차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출입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찰은 이들 차량 출입을 위해 6월 10일에 기지 출구에서 화물차의 출차를 막던 조합원 7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권정만 서경지부 조합원은 “비조합원들이 거의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평상시에는 차량 수천 대가 지나다니는데 지금은 마치 일요일처럼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는 한 노동자는 “우리는 대형 컨테이너를 몰아도 수입이 적다.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 아들들은 30대 중반인데 아직 대학 학자금을 갚고 있다” 하고 말했다.

강성학 카캐리어파인 분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 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안전운임제 적용은 안 되지만 비적용 대상자들도 안전운임제를 운송비 책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사측은 운송비를 임의로 측정해버려 더 열악해집니다.”

카캐리어 노동자들의 불만은 노조 가입 증대로 이어졌다. 기아차를 수송하는 백현관 카캐리어현성 분회장은 말했다.

“지난해 11월에 카캐리어 전체 조합원이 35명에서 현재 240명으로 늘었어요. 광명이나 화성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쉽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장기전을 각오하고 투쟁에 돌입했다는 노동자들도 많다.

강철규, 백선희

울산 현대차, 석유화학단지

“현대차를 멈췄다. 노동자의 힘을 확인하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진입 통로 네 곳과 울산신항은 화물 노동자들의 통제로 화물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기업 21곳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농성 중인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은 난처해질 겁니다. 계속 생산하지 못하면 원료가 궁거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정부는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파업 첫날부터 석유화학단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4명을 연행했고,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굳건히 버티며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생산에 타격이 커지고 있다. 카캐리어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사용자 측이 완성차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아차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공여지책으로 완성차를 일일이 운전해 납품(로드탁송)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일손을 멈췄다. 이로 인해 현대차 울산공장은 6월 8일부터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파업에 대비해 부품을 미리 챙겨 놔고 대체 차량을 급히 투입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사용자 측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

고 만든 적시 생산 시스템(부품을 쌓아 놓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힘을 키운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연대 소식도 있었다. 현대·기아차의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동료들에게 파업 지지 인증샷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화물 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고 한다. “기름값이 엄청 올랐던데 당연히 화물 노동자들이 이겨야 한다”, “윤석열에게 본패를 보여 주자”, “민주노총의 연대 집회도 필요하다”.

이런 기층의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

김지태

부산신항

“정부의 현 대책은 무용지물. 우리는 절박합니다”

화물 노동자 800여 명이 매일 아침 부산신항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하고, 부산신항 이곳저곳의 입구와 북항, 배후 단지 등으로 흩어져 봉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기름값이 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수입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옥희흥 위수탁본부 컨테이너지부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지만 원청에서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서용신 코카콜라지회 조합원)

고유가와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비조합원들도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전 파업 때보다 항만에 오가며 사측의 파업 파괴 시도에 동참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적다고 한다.

이렇듯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탄압을 경고하고 있지만 경찰 눈치 살피면서 투쟁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도 다들 악에 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기 양산지부장은 이 투쟁이 화물연대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후퇴하면 도로의

안전도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기 지부장은 서민들 생계난에 관심 없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유자본은 배를 불리고 있는데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 화물연대가 나선 것입니다.”

파업 첫날 결의대회에서 집회 대열 옆으로 부산신항에서 빠져나오는 열차가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화물 노동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때마침 연대 발언 중이던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대체수송 거부지침을 약속했다.

정성희



닷새 일찍 파업에 들어간 하이트진로 노동자들 탄압에 맞서 굳건히 투쟁하고 있다. 6월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인천항

“안전운임제는 오랜 투쟁의 성과. 폐지 막아야”

2015년 개장한 인천신항은 인천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60퍼센트를 처리하는 주요한 물류 중심지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두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은 여전히 운행 중인 컨테이너차량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평소 대비 컨테이너 차량 운행이 1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이 시간대에는 컨테이너차량이 출입구부터 도로가에 길게 늘어서 있는데, 지금은 출입하는 차량이 1~2대 정도입니다.”

고유가 속에 절박한 심정으로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파업에 공감이 큰 것이다.

노동자들은 투지를 드러내며 절박함을 말했다.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운송료를 20~30퍼센트 깎을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운임제가 있어도 위반하는 운송사가 있었습니다. 폐지되더라도 운송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무책임하고 거짓말입니다.”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다시 만들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며 이번 파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업 이후 인천신항 내 두 컨테이너터미널의 포화도(장치율)는 80~90퍼센트로 높아진 상황이다. 다음 주 초부터는 더 이상 화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컨테이너를 반출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차량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죽기 살기로 막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정선영

유병규

하이트진로(이천·청주)

계약해지 철회하고 황남열 지부장 석방하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기 닷새 전인 6월 2일,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보수 언론으로부터 ‘소주 대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에서 만만치 않은 투지를 보이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제품 출고율이 평상시의 3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해 난생 처음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며 저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사측은 제품 공급을 회복하고자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사측은 운송사 수양물류 외에 다른 업체와도 물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운송사 3곳 가운데 1곳이 계약해지됐고, 계약해지된 하청 운송사에 속해 있는 화물 노동자 33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을 열 받게 한 일은 또 있었다. 경찰이 조합원 15명을 연행해 가고,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장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사용자 측의 대체 수송 시도에 항의하던 하이트진로 한 조합원은 밀고 들어오는 차량에 깔려 발가락이 부러졌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대체

수송에 항의하던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쁘다.

박수동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자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의 기를 죽이려고 우리를 희생양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투지가 더욱 올랐고, 저 자본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인근 오비맥주, 한국타이어 등 대전 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이트진로 투쟁 현장에 연대하며 함께 싸워 나가자고 결속을 모아 나가고 있다.

안우춘

남구미 톨게이트

“곳곳에서 봉쇄 투쟁. 그래야 성과 낼 수 있다”

화물연대 남구미 톨게이트 농성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LG디스플레이, 삼성 휴대폰의 필름 등을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 등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다.

파업으로 이곳의 운송은 대부분 멈춰섰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 농성장을 거점으로 대체수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필자가 방문한 날에도 오전에 현장 투쟁이 벌어졌다. 도레이첨단소재에서 사용자 측이 대체수송을 강행하려고 해, 노동자들이 이를 막아 나서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화물차에 발이 깔리

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병원으로 실려 갔고, 병원비 보상과 함께 사용자 측이 대체수송 시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은 이후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한다.

김동수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장은 봉쇄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말했다.

“[봉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으로 막아야 그나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당한 말이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사측의 대체수송 시도야말로 파업 파괴 행위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자들은 매일 돌아가며 울산으로 지원도 가고 있다. 울산

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단지 봉쇄 투쟁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성장에서 만난 화물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파업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저력이 상당히 드러난 효과 때문일 것이다.

김성진 화물연대 금강지회장은 더 많은 연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맞게 단결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노동자들도 똑같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대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언론이든 어디든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영

이렇게 본다 <노동자 연대> 신문 논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반전 운동의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정치세력을 참여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 남짓 지난 지금, 본지의 정치적 분석이 그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면서도 나토의 확장·확전에 반대하는 우리의 최초 입장은 사태 전개에 의해 옳았음이 입증됐다.

러시아의 침공은 잔혹하고 반동적이고 모든 사회주의자가 반대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키예프에서 가로막힌 러시아군은 이제 마리우폴과 세베로도네츠크 등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고, 어느 쪽이든 빠르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침공 반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토 반대가 옳았다는 것도 사태 전개를 통해 입증됐다. 미국과 나토는 이 전쟁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세력을 다질 기회로 본다. 중요하게는, 러시아를 굴복시킨 뒤 중국과의 대결로 나아가려 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대결을 가장 중요한 대결로 본다. 지금 대만을 둘러싼 설전도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제국주의적(제국주의간) 충돌이라는 분석도 옳음이 입증됐다. 대리전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저 꼭두각시라거나, 러시아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바로 미국과 나토의 대리자 구실을 하고 있다.

전쟁 초 미국은 136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후 바이든 정부는 330억 달러 지원을 제안했고, 미국 국회는 400억 달러로 그 규모를 키웠다. 미국은 장거리 대포와 미사일 등을 지원하고, 영국도 무기 지원의 최선두에 서 있다. 나토로부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쏟아질 것이다. 단지 나토뿐 아니라 유럽연합 EU도 충돌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얼마전 키예프를 방문했고, EU는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EU에 신속히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처럼, 서방의 개입과 확전 추세는 매우 뚜렷하다. 그럴수록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속국이 되고, 서방 제국주의에



전쟁이 계속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서방 제국주의에 긴밀하게 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된 M777 곡사포를 군용기에 싣고 있는 미군

긴밀하게 얽힐 것이며, 이는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간) 성격을 보여 준다.

전쟁은 이제 (유혈낭자한) 소모전이 되고 있다. 이는 특히 동부지역 전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이다.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전력이 마모되고 있고, 미국의 무기가 전력을 대등하게 보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쟁 초 러시아의 키예프 점령 실패가 자아낸 희열은 이제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이는 확전 압력을 키울 것이므로 매우 위험하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사태의 휘발성은 커질 것이다.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이 대두되는 것도 그런 요인의 하나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전 운동을 건설할 필요성이 급속하게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휘발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열강의(강대국들간) 갈등뿐 아니라 제국주의 주변부의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그리스와 터키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현재 극도로 첨예해졌다.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면 제국주의 열강의 하위 파트너들도 거기에서 뭔가 얻어 내려 하고 그래서 더 호전적이 된다.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가 바로 그런 사례다.

역사적 유추 문제

역사적 사례로부터의 유추는 신중해야 한다. 가령 지금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에 비견되기도 하지만(예컨대 질베르 아슈카르), 둘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베트남 전쟁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이끈) 수십 년 간의 민족 해방 투쟁의 연장이지만, 소련과 중국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 분단에 합의해 이 투쟁을 배반했다. 베트남 전쟁은 이 투쟁이 남베트남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봉기로 재개되면서 벌어진 것이다.

북베트남이 소련에게서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맥락이 중요하다. 당시 소련과 중국은 서로 소규모 전쟁을 벌일 정도로 관계가 악화돼 있었고 서로 경쟁 중이었다(중소분쟁). 북베트남은 자신을 지원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두 국가 사이에서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상황은 전혀 다르다. 2014년 이래 우크라이나에서는 강경 국수주의자(배타적 애국주의자)들이 정부를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내 다른 민족에 적대적인 이 강경 국수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독립 지역과의 전쟁에 몰두했고, 그러면서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나토와 갈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혈낭자한 소모전이 되고 있다



5월 21일 서울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처럼, 제국주의간 충돌과 민족 해방 전쟁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세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언제나 복수형이다. 제국주의는 복수의 블록, 복수의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반제국주의는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혁명적 국제주의 전통에 따라 우리 자신의 지배계급을 가장 분명하게 반대한다. 친서방 국가 하에서 사는 우리는 따라서 서방 비판을 빼놓고 전쟁에 관해 논할 수 없다.

현재 이런 입장은 어느 정도 고립을 부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2003년과 다르고, 지금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다르다. 거리로 나오는 대중적 세력이 국제적으로 별로 없다.(반전 슬로건을 내놓은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나, 비교적 급진적인 노동조합들이 총파업을 소명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예외인 듯하지만 말이다.)

개혁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취약성을 보이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오카시오-코르테스로 대표되는 좌파 의원들인 ‘스쿼드’

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거의 모두 바이든 정부를 지지했다. 이제 미국 국회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은 일부 공화당 우파뿐이다. 개혁주의적 좌파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마치 핵심 권력층에 도전할 기회를 송두리째 극우에 넘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에서도 반전 슬로건으로 뭐라도 하려는 세력의 규모는 작다. 노동당 좌파도 당 지도부와 당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반전 슬로건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동당 좌파 의원은 단 한 명도 국제공동 반전집회에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독일에서 좌파당 지도부는 나토에 지나치게 연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노동자연대의 독일 자매단체는 좌파당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나토를 분명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른 경향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고 한다. 1000억 유로를 독일군에 지출하는 법안이 얼마 전 통과됐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법안 통과 며칠 전 우리 동지들 중심으로 200여 명 정도가 항의 시위를 벌였을 뿐이라고 한다.

질베르 아슈카르 등 급진 좌파 일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나토 비판은 어

림도 없는 소리다”라는 정치인과 미디어 등 주류 사회의 분위기에 좌파적 외피를 씌워 주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그러고 있다.

그러나 그런 류의 입장은 아무리 마르크스주의의 용어를 차용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한 전력을 들먹인다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실제로는 자국 정부와 주류 사회를 추수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자신들은 AK 소총 한 정 지원하지 못하고 바이든은 400억 달러짜리 무기 지원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마당에, 어떤 무기는 지원하면 안 되고 어떤 무기는 지원해도 된다는 식의 입장은 어처구니없고 현학적이고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서방 비판을 삼가면 그 의도가 어떻든 순식간에 잘못된 입장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고립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평화운동의 태도는 실제 사태에 걸맞은 수준보다 훨씬 비판적이다. 오히려 우리는 원칙에 입각한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곳들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중동 국가 등

기존 평화운동의 태도는 실제 사태에 걸맞은 수준보다 훨씬 비판적이다
오히려 우리는 원칙에 입각한 입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여러 정부들이 서방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서방이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면 이들 나라의 사람들은 퍼뜩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떠올린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위대한 항전” 운운하면 이들 나라 사람들은 예멘과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의 저항을 떠올린다.

서민 생활의 위기

역사적 사례로부터의 유추는 신중해야 하지만, 어떻게 제1차세계대전이 끝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전쟁이 낳은 물질적 효과가 러시아와 독일에서 반란을 낳았고 나머지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만큼 대중생계의 위기는 중요한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민 생활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반전 운동 건설 노력을 대중생계의 위기와 연결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대중은 물가 상승과 생활수준 삭감, 심지어(신흥국의 경우) 식량 부족과 기근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는 스리랑카의 항쟁이나 이집트·수단의 침예한 긴장 등을 부르고 있다. 생활수준 지키기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고, 우리는 노동계급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등 서방 지원은 노동계급의 생계에 대한 간접적 공격임을 지적해야 한다.

서방과 러시아 모두 군비 지출과 제재 때문에 노동계급에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길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반대는 늘어날 것이고, 현 시기에 벌어지는 노동계급 급진화의 일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소수 입장이지만 사태가 전개될수록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 학생 시위를 계기로 보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

이정구 중국경제 연구자

이 기사는 6월 9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
회(QR 코드로 영상 보기)
의 발제문이다.



얼마 전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 상태에 놓인 대학생들이 베이징대, 텐진대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서 관료주의·형식주의 반대와 함께 시진핑 타도 구호까지 나왔다.

1989년 톈안먼 항쟁 33주년을 앞둔 시기라 그런지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학생들의 시위가 사회 격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20년 우한 봉쇄 때나 2022년 상하이 봉쇄 초기에도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생 시위가 더 의미심장했던 것은 최근에 중국의 공식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겹쳤기 때문이다.

존재감이 없던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발언을 한 것이 〈인민일보〉나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에 보도된 것이다. 철저한 검열을 거치는 중국공산당 기관지와 국영방송에서 시진핑보다 리커창의 행보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진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홍콩의 〈명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적 언론들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러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권력 투쟁이 시작됐거나 시진핑의 주석직 3연임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그럴지 시진핑 체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은 잠시 뒤에 말하기로 하고, 그 전에 우선 시진핑 체제가 위기에 처한 배경부터 살펴보겠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베이징사범대 학생들 최근 벌어진 중국 대학생들의 시위에서는 “시진핑 타도” 구호까지 나왔다 한다

위기의 배경

위기의 배경으로 첫째, 시진핑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시진핑은 우한 봉쇄를 통해 초기에 코로나를 억제했고 그 덕분에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봉쇄 정책이 시진핑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로 봉쇄된 인구만 5억 명이 넘고, 상하이 양산항의 화물이 적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올 2분기 성장률이 1.7퍼센트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올해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정한 5.5퍼센트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위기의 배경으로 둘째,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위험 요소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덕분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이 오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전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도 이전만 못한 상황이다. 2021년 중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은 29.9퍼센트였지만 올해 1~2월에는 16.3퍼센트, 3월에는 14.7퍼센트, 4월에는 3.9퍼센트로 급락하고 있다. 상하이 봉쇄가 풀리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출 증가율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미크론

그렇다고 중국 산업을 숙련 노동력에 기반한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노동자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자 중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퍼센트 정도이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3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

고 있다. ‘검은 백조’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고, ‘회색 코뿔소’는 뻔히 예견되는 일이지만 대처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민간기업과 가게 부채가 급증하고, 수익성 악화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부동산 2위인恒大그룹의 부도 위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진핑은 “질서 있는 파산”을 주장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다. 또, 공동부유를 내걸고, 거대해진 민간 플랫폼 기업들을 단속했다. 이것이 지난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봉쇄가 추진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상하이 봉쇄로 항만의 물동량이 묶여 버린 사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위기와 중국공산당 내 이견 표출

지금부터는 중국 경제 상황과 중국공산당의 통치 기반 문제를 살펴보겠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 2010년 즈음 10퍼센트가 넘었던 성장률이 이제는 5퍼센트도 쉽지 않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퍼센트를 기록했고, 2021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8.1퍼센트를 성장했지만 두 해의 평균은 5.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규 일자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이 1076만 명인데, 이들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적어도 8퍼센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8퍼센트는커녕 올해 목표치인 5.5퍼센트조차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 5월 18일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루펑(盧鋒) 교수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이 6.1퍼센트이고, 청년실업률은 18.2퍼센트라고 밝혔다. 공식 실업률은 미국의 3.6퍼센트보다도 높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유럽 13.9퍼센트나 미국 8.6퍼센트에 견줘 훨씬 높은 수준이다. 중국 대학생들의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시진핑과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학생들의 시위를 예의 주시했던 것이다.

경제 문제, 즉 일자리와 소득은 중국공산당의 지지 기반과 관련이 크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오르면 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반대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중국공산당의 지지 기반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1966년 문화대혁명과 1989년 톈안먼 항쟁 때 학생과 노동자들이 반란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런데 코로나 봉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은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회장 마화팅(좌)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우) 평소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마화팅조차 최근 중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그렇잖아도 성장 둔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5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1,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1.1이었다. 3개월 연속으로 경기 침체 기준선인 50 이하를 기록한 것이다. 심지어 소매 판매 증가율은 마이너스 11퍼센트였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배계급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중국공산당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지방정부 관료들과의 온라인 긴급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중국 경제 지표가 크게 떨어졌고 어떤 측면에선 코로나19가 닦았던 2020년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고용과 생계를 유지해 2분기의 합리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커창 총리의 이 발언은 제로 코로나 정책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시진핑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 이런 리커창의 행보가 〈인민일보〉와 또 다른 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소개됐다. 이것은 확실히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시진핑이 하락하고 리커창이 올라간다는 뜻의 ‘시샤리상(習下李上)’이라는 말이 유행

하고 있다.

그동안 리커창은 영향력이 미미한 총리였다. 보통,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중국 정치의 관례이지만, 시진핑은 영도소조를 만들어 직접 경제를 관장해 왔다. 중국 경제의 운영에서도 시진핑과 리커창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시진핑은 국유기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진민퇴’를 주장한 반면 리커창은 시장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시진핑과 대립각을 세운 게 리커창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주룽지 전 총리가 시진핑의 3연임을 비판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자 5월 15일 당 중앙 판공청 명의로 “은퇴 간부의 당 건설 업무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이 발표됐는데, 당 간부를 역임하다 은퇴한 당원은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당 원로에 대한 시진핑의 견제였던 셈이다.

중국 최대의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의 최고 경영자 마화팅도 최근 “후시진 말고는 누구도 중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퍼다 날랐다. 후시진은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을 역임한 인물로 “바이러스 통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공중보건 혜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2년 전 중국의 금융 체계는 구멍가게 같다고 비판했다가 중국공산당에 호되게 당한 전례가 있어 다들 움츠러든 상황이다. 평소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마화팅의 이런 행위는 그래서 더욱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시진핑 체제의 앞날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중국공산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시진핑의 3연임이 흔들리고 리커창이 부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으로 보인다.

올 11월에 있을 제20차 당대회에서 당장 리커창이 시진핑을 대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시진핑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분명하

지만, 중국공산당 내 권력 투쟁이라 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우선 7월 말과 8월 초에 열리는 지배 분파들의 비공개회의인 베이다이하(北戴河) 회의에서 이견이 조율될지 아니면 갈등이 증폭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 경제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면 지배 분파 사이의 갈등도 더 첨

예해질 것이다.

물론 시진핑이 올해 11월에 3연임을 달성하더라도, 이것이 시진핑 체제의 안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상황을 볼 때 시진핑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한편으로는 하락하는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거품과 날로

증대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을 높여 주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텐데,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일 자리를 늘리려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이 낮기 때문

▶ 12면으로 이어짐

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차별에 항의하다

6월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정규교사와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평가 등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도 많다.

1년 업무 평가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물론 성과상여금은 교사들을 돈으로 경쟁시키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차별은 다른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한 달 동안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8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참여했다. 2000여 명의 정규교사들도 동참했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조직한 서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성과급 차별에 대한 기간제교



6월 8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기간제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에 성과상여금을 도입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

나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보다 능력이 없는 교사로 생각하도록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맥빠지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가 능력이 부족한 교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씁쓸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은 기간제교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호봉승급, 정근수당 등에서는 차별을 인정했지만 맞춤형복지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입맛대로 노동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교육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은 이런 부족한 법원 판결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부의 재량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해 즉각 나서는 게 정상”이다.

박해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에 이렇게 일갈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기간제교사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조명지

▶ 11에서 이어짐

에 오히려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은 더 하락할 것이다.

금리를 낮출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2~4월 중국 채권시장에서 3011억 위안(57조 원)이 나 빠져나갔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외국 기관투자자의 위안화 채권 거래 통계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플레이를 감안한 실질금리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중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자본 유출로 위안화 폭락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경기부양을 하기도 어려운 조건일 뿐 아니라 그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제 환경도 시진핑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바이든은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은 쿼드(Quad: 미국·호

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동맹) 같은 정치적·군사적 동맹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켜 경제 부문에서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철강 같은 원자재, 핵심 반도체 장비 등의 중국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중국에 경고로 그치지 않고 전략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나토는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의 위협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적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의 거세지는 압박에 대해 중국도 캄보디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솔로몬 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남중국해와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 체제 균열과 저항

현재는 중국 지배자 다수가 시진핑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정책이나 국제 관계가 난관에 봉착하면 시진핑 체제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더 나아가 뒤흔들릴 수 있다. 중국 현대사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1950년대 후반 대약진운동의 실패가 초래한 위기가 문화대혁명의 원인이 됐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낳은 경제적 실패가 1989년 톈안먼 항쟁을 낳았다.

중국은 당과 국가 관료가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이기에 국가의 경제 정책 실패는 지배체제 내부의 균열을 초래한다. 이때 기층에서는 지배계급의 한 분파에 대한 환상을 갖고 투쟁을 벌이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이처럼 중국 지배계급 내의 갈등과 분열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투

쟁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의 학생 시위는 이런 가능성을 활짝 보여 줬다. 학생들의 투쟁이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고 정치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0년 이래 신세대 농민공이 저항의 선두에 서 왔다. 특히 건설, 제조업, 운송, 유통, 배달 등 여러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건설 등의 쟁점을 두고 투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잠깐 위축됐지만 그 뒤로 다시 파업 등 투쟁이 증대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 이런 투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중국의 노동자·학생들이 이런 투쟁 속에서 개혁을 쟁취할 뿐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조직을 건설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노동통제 강화에 맞서 투쟁하다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에 맞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등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500여 명 중 90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70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배달하는 물건당 받는 수수료가 수입의 대부분이고, 차량 임대비와 유지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년에 한 번 재계약이 돌아오다 보니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진짜 사장인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틈만 나면 비용을 절감한다며 노동자를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해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6월 서명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지 않거나 분류 작업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을 마련한다며 택배 요금도 올렸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기존 급여에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분류 작업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7월부터 분류 인력 충원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



6월 13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결의대회

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 오히려 기존 급여에서 분류 수수료만큼 차감(상자당 111원)하겠다고까지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개악된 새 계약서를 들고나왔다(7월 1일자로 시행). 새 계약서를 보면, 택배 물량을 사측이 임의로 조정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또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일정 기간 업무 정지)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경고 4회 시 계약 해지). 그리고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노동자들은 경유비가 폭등하고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사측의 공격에 분노하며 항의에 나섰다. 며칠 만에 조합원 대다수가 투쟁기금 10만 원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위임장(노조에 개별 계약서 작성을 위임) 제출에 동참했다. 간부 결의대회와 지역별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사회적 합의'도 안 지키는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우정사업본부는 한 발 물러서 노동자들에게 기존 물량을 그대로 보장하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업무 정지 기간을 조금 줄였을 뿐 쉬운 징계와 해고는 철회하지 않았다. 또, 평균 건당 14원이 삭감된 배송 수수료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 기준 물량으로 노동자 1인당 임금이 매달 6만 원가량 삭감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면 집배원을 동원해 대체 배송에 나서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집배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로사가 이어져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차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하는 택배 물량을 줄여나가고(비용 절감), 남은 물량을 고정급을 받는 집배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와 집배원은 같은 사용자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6월 1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나 모여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6월 18일 1차 경고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개악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신정환

단독 보도

처우 개선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현재 화성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주민 13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작성한 연서명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와 전문을 실는다. 연서명한 구금자 전체의 이름과 출신 국가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이트발라 압델라티프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모로코 출신 난민입니다. 저는 현재 2021년 10월 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2년 6개월, 3년씩 구금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체류 기한을 넘긴 난민들일 뿐이고,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기 화성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는 이들의 이름과 출신 국가, 서명을 적었습니다. 이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아래에 있는데, 먼저 보호소 내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화성보호소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구금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금자들은 열악한 음식 때문에 소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도물도 안 좋아서, 샤워를 하면 저희들은 온몸을 긁습니다.

휴대 전화도 일주일에 고작 몇 분 이외엔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중 전화카드도 고쳐줬는데, 전화를 걸 수 있는 해외 국가의 수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달째 가족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보호소가 우리를 강제로 한국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호소 측은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소에 계속 가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체류 기한을 넘긴 난민들일 뿐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자유를 빼앗지 마십시오.

박이랑

HELLO!

My name is AITALLA ABDELLATIF, I am 42 years old man. I am a REFUGEE PERSON from Morocco, I am being detained in Hwasong detention center since 08/10/2021, and have many people they are here 2 years 6 months and have also 3 years. We are just over stayed and Refugee People. We are not a Criminals.

We have a list by names and countries and signature for people who complain against the worse situation here. they have a similar situation like me. I will share them later. Let's continue to fight.

We are not a criminals to take our freedom, and the list names:

NAMES	COUNTRY	Signature	NAMES	COUNTRY	Signature
AITALLA ABDELLATIF	MOROCCO	[Signature]			
ARTUR BOROVY	RUSSIA	[Signature]			
ZAKHAR PAVLOV	RUSSIA	[Signature]			
ABDOLAH ABDO	MINISTAR	[Signature]			
ABDOLAH ABDO	MINISTAR	[Signature]			
DAD FARHAY MAJID	IRAN	[Signature]			
FLIPSHUK VASYLYNSKY	UKRAINE	[Signature]			
ABDOLAH ABDO	MINISTAR	[Signature]			

사진 제공 아이트발라 압델라티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workerssolidarity.org/join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발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D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 4

6월 12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멜랑송의 좌파 연합에 대한 지지가 급등하다

찰리 김버

6월 12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는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맞선 좌파적 대안이 대중적 지지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마크롱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 줬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장뤼크 멜랑송이 이끄는 신(新)생태사회민주연합(NUPES, 이하 “뉘프”)이다. 6월 12일 오후 10시(현지 시각) 현재, 뉘프 소속 정당들의 득표율은 총 25.6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세력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이다.

개표 전 멜랑송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대안적인 세계와 사회의 비전입니다. 하루 이를 만에 낙원을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을 끝장낼 것입니다.” 개표가 진행되자 멜랑송은 결선 투표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뉘프가 1위를 했습니다. 지지자 여러분들은 다음 일요일에 있을 결선 투표에 대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롱의 선거 연합 ‘앙상블!’(“함께”라는 뜻)은 뉘프보다 낮은 25.2퍼센트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크롱에게는 커다란 타격이다. 프랑스 총선에서 여당 세력이 30퍼센트 이하를 득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이 전체 의석 577석의 과반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몇몇 장관은 의석을 잃을 듯하다. 미움 받는 교육부 장관 장미셸 블랑케르는 이미 1차 선거에서 떨어졌다.

5년 전 마크롱의 정당과 그 동맹 세력들은 총선에서 356석을 획득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조치를 추진하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제 저항은 그때보다 더할 것이다.

‘앙상블’의 저조한 성적은, 지난 4월 마크롱의 대선 승리가 파시스트 마린 르펜을 떨어트리려는 염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마크롱의 계획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6월 12일 현재,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득표율은 19퍼센트에

이를 뜻하다. 이는 2017년 총선에서 득표한 13.2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에릭 제무르가 이끄는 극우 정당도 4퍼센트를 득표할 듯하다. 국민연합은 의석이 훨씬 늘 것이다.

정치 체제 전반에 대한 환멸이 만연해, 투표율은 역대 총선 1차 투표 중 가장 낮은 47퍼센트를 기록했다.

파리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드니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이런 선거 결과들은 불안정과 정부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태 전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선거가 모든 것을 지배했는데, 앞으로는 더 직접적인 투쟁이 돌아올 것입니다.”

5개 정당의 선거 연합 뉘프에는 멜랑송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이 속해 있다. 멜랑송은 사회당을 선거 연합에 끌어들이므로써 그 당에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 줬다. 사회당은 4월 대선에서 고작 1.75퍼센트를 득표했다.

▶ 15면으로 이어짐



좌파적 청중을 확인하다 파리에 연설하는 장뤼크 멜랑송

사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캠페인 사진



사진 출처 프랑스 '연대 행진'

6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인종차별·극우 반대 시위

▶ 14면에서 이어짐

뤼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생필품 가격 동결하는 등 몇몇 인기 있는 조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마크롱이 폐지한 부유세 재도입도 약속했다.

우파는 이것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값비싼 정책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뮈랑송을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빗대 “프랑스판 차베스”라고 비난한다. 그

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약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긴다. 특히, 생활비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뤼프의 선거 성적은 좌파 사상을 경청하는 거대한 청중이 있음을 보여 주는 매우 반가운 징후다. 그러나 뮈랑송은 작업장과 거리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프랑스 주류 정치가 위기에 빠진 지금, 기층의 투쟁은 사활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거리에서 극우에 맞서기

6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인종차별·극우 반대 시위에 약 5000명이 참가했다. 광범한 단체들의 연합 ‘연대 행진’이 조직한 이날 시위에는 노동조합과 운동 단체들이 한데 모였다.

파리 행진에는 “상파피에”(서류 없는 사람들, 즉 미등록 이주민)들과 파리 북부와 몽트뤼유에서 온 인종차별 반대 지역위원회들도 여럿 참가했다. 마르세유·바욤·푸아티에·아미앵·발랑스에서조차 비슷한 행진이 열렸다.

몇몇 활동가들은 파리 시위 전에 사전 집회를 열어, 경찰이 라야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살해한 것을 규탄했다. 6월 4일에 경찰은 라야나를 사살했다. 지난 네 달 동안 이런 죽음이 네 차례 있었는데, 그중 두 건이 4월 대선 당일 밤에 일어났다.

라야나의 친구 이네스는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세 명이 라야나가 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고 전한다. 운전자 남성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면허가 없었던 운전자는 교통에 가

로막힐 때까지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무기를 들어 창문을 깨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네스는 이렇게 전했다. “앞좌석에 있던 라야나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라야나의 이름을 거둬서 목청껏 불렀죠. 라야나의 몸이 축 처지는 것을 보고서야, 라야나의 목이 피로 뒤덮인 것을 깨달았어요.”

장뤼크 뮈랑송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차를 세우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마크롱 정부의 총리 엘리자베스 보른은 뮈랑송이 경악스러운 얘기를 했으며 경찰을 모욕하는 “무책임하고 무가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사건이 벌어진 동네에서 열린 사전 집회에는 지역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지도부의 승인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이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경찰이 사람 잡고, 인종차별이 사람 잡고, 파시즘이 사람 잡는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9호 / 번역 김준호

프랑스 선거 방식

6월 19일에는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다. 1차 투표에서 바로 당선자가 되려면 전체 표의 과반, 등록 유권자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 결선 투표에 진출하려면 등록 유권자의 최소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1명뿐이면, 그 다음으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함께 결선에 오른다. 그 요건

을 충족하는 후보가 하나도 없으면 가장 많이 득표한 두 명이 결선에 오른다.

마크롱의 선거 연합은 1차선거 득표율에 견준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듯하다. 좌파의 득표가 비교적 소수(대개 도시의) 선거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파 표는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런 선거들은 당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정당들은 후원금·당비에 더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0개 이상 선거구에서 1퍼센트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 당 1.42유로를 받는다.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고리 2호기가 또 고장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3일 고리 2호기의 냉각재 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에 불이 나 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석 달 동안 정기검사를 받고 5월 30일에 가동을 재개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또 고장이 난 것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39년이나 운영됐고, 내년이면 40년인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한 핵발전소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이런 노후 핵발전소의 부품을 최신 부품으로 교체해 수리하면 설계 수명보다 10년을 더 운영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핵발전소는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발전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든다. 그런데 핵연료(우라늄)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성질이 있다. 냉각재는 그 반응이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동시에 열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해 증기를 만든다.

따라서 냉각재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발전이 정지될 뿐 아니라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노심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다른 발전소나 산업 시설에서 생긴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떠올려 보라.

문제는 이 냉각장치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핵분열 반응을 통제하려고 만든 3중 4중의 장치들은 매우 복잡하다. 또 고압의 냉각재를 순환시키느라 상당한



핵발전은 기후 위기 대응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상태로 40년을 가동하면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심지어 건설 당시에 이미 불량 부품을 사용한 사례나 부실 시공을 해 콘크리트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구멍

지금은 폐쇄된 고리 1호기의 경우 2007년에 수명 연장이 결정돼 10년을 더 운영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일어난 고장·사고만 7건이나 된다. 특히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2012년 사고 당시에는 냉각기를 작동시키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 하마터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도 핵발

전소 운영에 근본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산불 때문에 울진 핵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던 전선이 끊겨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됐고 발전소 측이 출력을 대폭 낮추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핵발전소는 중대 사고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내에 10개 가까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차례로 연장하려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렴한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는 데에도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핵발전을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지어 놓은 핵발전소를 운영해 추가 재정 지출을 피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잠재적 핵무기 원료 공장'인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해 장차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의 원천 기술이 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이 모든 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부산과 전국의 탈핵 운동 단체들은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등을 이어왔다. 6월 18일에도 부산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고리 2호기 폐쇄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호중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6월 23일(목)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노동자연대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 제국주의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윤석열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더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이죠. 서방의 지원 속에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강대국 간 직접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난, 물가 폭등, 식량 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에 기댄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선일까요? 무기 지원은 좌파 내에도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최근 상황, 논란 많은 쟁점들, 반전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참가신청 bit.ly/0623-meeting



-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